

중국 사회에서 ‘토지 재정’은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도시 주민들의 소득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때면 토지 공급을 지방정부가 독점하는 현재의 토지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나날이 심화되는 중국의 빈부 격차도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지방정부의 횡포로 설명되곤 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도시’의 출현은 지방정부가 실제 수요를 고려치 않은 채 무분별하게 토지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이라 설명되고, 토지 담보에 기초한 융자 시스템의 형성도 향후 혹 있을지 모르는 중국 발 금융 위기의 우려 때문에 ‘시한폭탄’처럼 묘사되곤 한다. 자원 낭비와 불균형, 지속불가능과 불공평한 분배 등 중국 사회에서 거론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토지 재정’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학자들이 ‘토지 재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쉐핑(賀雪峰)과 자오옌징(趙燕菁)이 대표적인 이들인데, 그들은 중국의 현 제도적 상황에서 ‘토지 재정’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토지 재정’을 통해 형성된 지방정부의 수입은 지방 관료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 인프라 건설에 주로 사용되며, 따라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을 다른 국가의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에 이미 도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구매자가 그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본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토지 재정’을 통해 농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주장한다. ‘토지 재정’에서 지방 정부의 토지 수용은 언제나 농민들에 대한 보상을 수반하며, 그 보상 금액을 시장가격에 맞추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도시 근교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노동의 수고 없이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주는 것은 개발에 따른 토지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이념과 상충한다. 게다가 도시 근교에 거주하는 농민 인구가 전체 농민 인구의 채 10%가 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10%도 안 되는 이들의 이익이 마치 전체 농민의 이익인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령 도시’의 출현이나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제고에 혈안이 되어 수요를 고려치 않은 채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지방정부의 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토지 재정’을 부정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 역시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급진적인 데 있는 것이지 ‘토지 재정’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감시와 관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부정과 폐지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다.

허쉐핑이나 자오옌징은 오히려 중국의 ‘토지 재정’에서 합리성을 발견한다. ‘토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최초의 신용을 창출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도시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 소득 집단이 원천적으로 형성될

1) 학술대회 발표용으로 작성된 미완성 원고입니다. 인용 및 언급을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글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허쉐핑과 자오옌징의 글도 분량 관계로 참고문헌에 따로 포함시키지 않았 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토지의 가치 상승은 개인의 노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전기, 수리 시설 등의 공공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분을 개인이 아닌 공공 재정에 편입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평을 실현하는 길이다. 도시 근교의 일부 농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시장 가격에 맞춰 거래하는 것은 노동과 상관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시기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토지 재정’은 그 최초의 기획 의도와 상관없이 현 중국의 제도적 상황에서는 나름의 합리성과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양립하는 상황에서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허쉐핑과 자오옌징의 ‘토지 재정’ 해석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들은 왜 일반적인 시각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기하는 것일까? 그들은 어떻게 주류의 시각에 반하는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 한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무엇이고, 그 지식이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또 무엇일까?

2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자의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상식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쿤(1992)은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정상과학의 본질을 수수께끼 풀이라 규정하면서 연구자들에 의해 경험된 예외적인 현상들이 기존 학설과 이론, 지식에 대한 의심을 낳게 되는 순간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즉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례적 현상이 발견되었을 때, 정상과학의 위기가 발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혁명적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쿤의 관심은 학술 공동체 안에서 과학적 진리가 결정되는 그 메커니즘을 살피는 데 있었지만, 수수께끼 풀이나 혹은 이례적 현상의 발견을 그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형성에서 기본적인 동력이 합리적인 의심에 있음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비단 자연과학의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미국에서 여성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연구가 출현하는 과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되곤 하는데, 1960년대 이후 여성 혹은 흑인 연구자가 학술 공동체 안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학술 연구가 그들의 경험이나 사회적 배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에 따라 새로운 학술이 제도화의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Messer-Davidow, 2002; Small, 1999). 어떤 경우에는 학제 간 연구의 차이가 이러한 합리적 의심의 원인이 되곤 하는데, 1990년대부터 미국 사회학 내 일부 연구자들은 인지 과학이 축적한 연구 성과를 자신의 연구 영역 안으로 적극 가져가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의 학술 권위는 이를 받아들이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다른 학술 영역의 연구 성과가 기존의 학술영역에서 합리적인 의심으로 기능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DiMaggio, 1997; Turner, 2002).

허쉐핑이나 자오옌징의 ‘토지 재정’ 해석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허쉐핑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 농촌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었고, 실제로 그는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농촌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특히 풍부한 농촌 현지조사로 유명인데, 그가 여러 차례 “중국 사회는 중국 농촌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자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은 농촌 현지조사를 통해 형성된 합리적인 의심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화 전략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농촌의 현실이 학계의 일반적인 이해와 다르다는 것을 발

견했고, 그로 인해 ‘토지 재정’의 합리성을 적극 제기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자오옌징의 경우도 그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현재 샤먼시의 도시계획국장에 재직 중인데, 이로 인해 그는 도시 개발과 부동산 정책 방면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푸젠(福建)성은 중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개발 지역 중 하나이다. ‘토지 재정’이 지방 정부의 차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그는 누구보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그렇다면 그가 일반적인 ‘토지 재정’ 해석과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현장의 경험이 학계의 설명과 충돌하면서 합리적인 의심을 낳았고, 여기에 연구자로서의 소양이 더해져 적극적인 ‘토지 재정’의 옹호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이 정말로 새로운 지식의 형성과 출현에 기여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학술 공동체에서 ‘합리적인 의심’은 일상사에 속한다. 너무나 다양한 의심이 너무나 자주 제기되지만(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 언제나 새로운 지식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회운동의 출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회운동의 출현은 언제나 사회적 불만과 불평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불만과 불평이 사회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사회 불만이 형성되는 것과 사회운동이 출현하는 것 사이에는 개연성만 인정될 뿐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자주 ‘동원(mobilization)’ 연구로 치환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지식의 탄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정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만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지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을 이 글은 ‘기회 구조(opportunity structure)’라 부르려 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지식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어떤 식으로든 ‘전략적 이득(strategic gain)’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비로소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콜린스(Collins, 1998)에게는 ‘명예’였던 것, 그리고 부르디외(Bourdieu, 1988)에게는 ‘취업 상황’이었던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합리적인 의심’은 그저 의심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이 발표되어야 하고 새로운 논쟁이 펼쳐져야 하며 새로운 지지 집단이 규합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아무런 ‘전략적 이득’도 없이 그 동력을 찾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하다. 물론 알렉산더(Alexander, 1995)나 라몽(Lamont, 2001)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구자의 동기와 이유를 단 하나의 ‘전략적 이득’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나 이유는 그들이 처한 학술 공동체 내의 구조적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쉽게 지워질 수 있다. 학술 공동체 내의 구조적 상황 때문에 ‘합리적 의심’은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단순한 헛소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적어도 ‘전략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적 상황일 때 ‘합리적인 의심’은 더 쉽게 새로운 지식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허쉐핑과 자오옌징이 기존의 ‘토지 재정’ 이해와 상반되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단순히 그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은 조직되고 운영되며 유통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특별한 사회적 조건 때문이다. 이는 허쉐핑과 자오옌징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해석을 내놓았다는 뜻이 아니다. 필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자적 양심과 태도를 존중하며, 그들의 연구에 특정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해석으로 학계에서 논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한 학술 공동체 내의 특별한 구조적 상황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쉽게 묻혀버릴 수도 있었다고 본다. 이글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 ‘합리적인 의심’이 새로운 지식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던 중국 학술 공동체 내의 그 ‘기회 구조’이다.

3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지식의 출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가 그 지식을 제기했는가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신뢰(credibility)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인데, 기존의 지식에 반하는 새로운 지식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그 새로운 지식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Shapin, 1994). 근대 이후 이 자격은 학술 공동체라는 공식적인 제도가 담당하고 있다. 학술 공동체가 정한 교육 과정과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나아가 학술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학술 규범을 익혀야 비로소 새로운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학술 공동체 안에서도 새로운 지식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은 한정적이다. 이제 막 그 자격을 부여받은 젊은 연구자가 학계가 공인하고 있는 기존 학설을 뒤엎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프리켈과 그로스(Frickel & Gross, 2005)가 이론화했던 것처럼, 학술 공동체 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지위에 있는 연구자만이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새로운 지식의 출현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학술 공동체 내에서 그 지위가 높다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권위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비교적 쉽게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쉐핑의 경우는 그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가 학술 공동체 내에서 젊은 연구자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높은 학술 권위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허쉐핑은 1968년 생으로 화중과기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전공은 ‘토지 재정’이 아니라 농촌 거버넌스이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지의 유수 대학 교수들을 고려하면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학술 공동체 내에서의 상징적인 학술 권위 역시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뭔가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허쉐핑이 학술 공동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로 눈을 돌리면 이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설사 그가 개인적으로 학술 공동체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만약 그가 풍부한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면, 그의 ‘합리적인 의심’은 손쉽게 학술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테전(溫鐵軍)은 공식적인 자리이든 비공식적인 자리이든 허쉐핑의 해석을 알리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며, 삼농문제를 제일 먼저 언론에 호소했던 리창핑(李昌平)도 허쉐핑의 초기 연구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의 부주임인 천시원(陳錫文) 역시 허쉐핑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여러 차례 중앙 1호 문건 작성에 참여하였던 장루슝(張路雄)도 『토지 권리의 논리』가 출판될 때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지 재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허쉐핑의 책은 대략 3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토지 권리의 논리』(2010), 『토지 권리의 논리Ⅱ』(2013), 『도시화의 중국도로』(2014)), 이 책들을 추천했던 학자들의 면모가 대단히 화려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원테전이나 천시원, 장루슝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베이징대학의 야오양(姚洋), 칭화(淸華)대학의 추이즈위안(崔之元)과 왕후이(汪暉), 홍콩중문대학의 왕샤오광(王紹光),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정용넨(鄭永年)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토지 재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연구자는 허쉐핑 개인이지만, 그의 해석은 이 네트워크

크를 통해 중국 학계 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자들의 후광을 등에 입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학술 권위를 갖게 되는 사례는 중국 학계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다. 가령 1970년대 말 한 자녀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의가 학계에서 처음 제기되었을 때, 이러한 후광 효과가 실제 영향을 발휘된 적이 있다. 대표적인 이가 쑹젠(宋健)이었는데, 당시 그는 미사일 공학도로서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까웠지만, 그가 공학에서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중국의 인구 증가 추이를 예상했을 때 당시 학계는 이를 ‘진리’로 받아들였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대 최고의 과학자로 칭송받았던 첸쉐썬(錢學森)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쑹젠의 후견인임을 자처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여러 정부 관료들에게 쑹젠의 연구를 참조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Greenhalgh, 2008). 허쉐핑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중국 학계 내에서 최고 권위의 학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다른 학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단순히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네트워크에 힘입어 나타난 허쉐핑의 ‘토지 재정’ 해석이 학술 공동체의 전체 구성원들에게 고루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독 특정 집단 안에서만 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허쉐핑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유명 학자들은 주지하다시피 대부분 중국의 경험이나 중국이 처한 현실을 강조하는 학자들로, 이른바 ‘신좌파’라는 딱지가 붙은 이들이 태반이다. 허쉐핑은 ‘삼농중국’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금도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의 글이 가장 많이 소비되고 논의되는 곳은 정치적 색깔이 짙은 ‘오유지향’이다. 심지어 허쉐핑 본인이 직접 그 전선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는데, 토론의 형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는 우징롄(吳敬璉)이나 차이팡(蔡昉), 리이닝(厲以寧), 저우치런(周其人)의 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결코 낮추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자유주의’ 경향의 학자들이 허쉐핑의 해석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저우치런은 한 때 허쉐핑의 책을 추천했던 장루슁에게 “읽어보기는 했는가”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 대조적인 양상은 허쉐핑의 ‘합리적인 의심’이 중국의 학술 공동체 내부에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허쉐핑의 연구를 선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일부에서는 있는 힘을 다해 무시하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허쉐핑의 새로운 해석은 서로 다른 학술 규범이 중국 학계에 상존하는 현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누군가의 학술 규범에서는 새로운 지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학술 규범에서는 새로운 지식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학계에는 통일된 학술 규범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학계와 관계의 구분도 모호할 뿐 아니라 하나의 학문 분과 안에서 서로 다른 학술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중국의 한 유명 학술잡지의 편집인은 투고 논문의 발표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질이지만, 여기에는 편집인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고 이른바 ‘판시’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학술 규범이 통일되어 있다면 진입 장벽은 높아지게 마련이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나타나기 어렵다. 허쉐핑이 자신의 ‘합리적인 의심’을 내놓을 수 있었던 데에는 서로 다른 학술 규범이 공존하고 있는 중국 학술 공동체의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서구의 학술 규범이 중국 학계에서 계속 상대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중국 모델이나 보편가치에 대한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논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에 따라 서구의 개념과 이론은 상대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국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요청되고 있다. 서구에서 생산된 기존의 권위 있는 학술 규범을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학술 규범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토착화’를 강조하는 연구자라면 허쉐핑의 ‘합리적인 의심’은 너무나 달콤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허쉐핑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회주의시기를 통해 형성된 중국의 독특한 사회체제이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이다. 실제로 학회에서 그의 토론을 맡았던 한 연구자는 그가 서구 이론을 의도적으로 거부한다고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중국의 학술 공동체 안에 하나의 통일된 학술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허쉐핑의 새로운 해석은 서구의 학술규범이 아닌 중국의 학술규범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편승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오옌징은 허쉐핑과 그 상황은 다르지만, 그의 ‘토지재정’ 해석이 새로운 지식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중국적인 학술규범의 추구가 중요했다는 사실은 허쉐핑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자오옌징은 허쉐핑과 달리 도시계획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학술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영국 카디프 대학에서 조직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샤먼시의 도시계획국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학회의 이사직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은 유명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다. 그는 『베이징계획전설』이라는 학술잡지에 오랫동안 자신의 고정 칼럼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의 높은 학술 지위가 아니라면 이러한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토지재정’을 적극 옹호하는 글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일부 중요한 내용을 꾸준히 제시하였지만, 그 속에서는 중국의 독특한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주택 가격이 결코 거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되었지만, 그것을 다른 국가의 주택 가격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서술되지는 않았다. 중국의 세제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언급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 함의는 ‘토지재정’을 설명하면서부터이다. 게다가 그는 ‘토지재정’ 때문에 중국은 ‘화평굴기’가 가능하다는 설명도 내놓고 있는데, 중국은 최초의 자본 축적이 토지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서구의 경우처럼 식민지를 만들 필요가 없고, 따라서 ‘화평굴기’는 단순히 수사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쉐핑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삼농중국’은 자오옌징의 글을 게재하면서 ‘중국 특색의 발전 경로’라는 평가를 덧붙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이 중국적인 학술규범이 추구되는 맥락을 떠나서 얼마나 이해될 수 있겠는가?

4

하나의 통일된 학술규범이 부재한 가운데 중국적인 학술규범의 필요가 높아져 가는 중국 학술 공동체의 현재 상황은 부르디외(Bourdieu, 1988)가 『호모 아카데미쿠스』에서 설명했던 1960년대의 프랑스 학계와 매우 닮아 있다. 부르디외는 1960년대 후반 구조주의와 바르트 식의 기호학이 흥성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대학 내 패컬티의 구성 양상이었다. 전후(戰後) 프랑스의 대학에는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늘어갔고, 프랑스 교육 시스템은 대학 패컬티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변화에 대응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전라면 대학 패컬티에 포함되기 어려웠던 이들이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학술 규범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대학 패컬티에 소속된 이들은 그 자신이 이전 학술규범의 최소조건도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와는 완전히 다른 학술규범을 만들어야 자신들의 곤란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구조주의와 바르트 식의 기호학은 이러한 학술규범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새롭게 대학 패컬티에 소속된 이들이 이전과 다른 학술규범을 추구하면서 그 대안으로 구조주의와 바르트 식의 기호학을 선택했던 것이다.

물론 현재 중국 대학의 패컬티 구성이 1960년대 프랑스 대학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1977년의 까오카오 부활 이후 자격을 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대학 패컬티를 구성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분명 그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단정해 논의를 끌어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학술규범이 공존하는 중국 학술 공동체 내부의 현 상황이 1960년대 프랑스의 그것과 닮았다는 뜻이며, 이 학술규범의 차이가 새로운 지식을 끌어내는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 1960년대 프랑스의 그것과 닮았다는 뜻이다. 앞에서 '기획 구조'로 가리켰던 새로운 지식의 사회적 조건도 바로 이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인데, 허쉐핑과 자오옌징의 '토지재정' 해석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학술 공동체에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합리적인 의심' 때문이 아니다. 통일된 학술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구의 학술규범에 상대되는 중국적인 학술규범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이 새로운 지식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적인 학술규범을 추구하는 이들이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필자는 중국 학술 공동체의 이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학술규범이 양립하는 상황은 결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요청하게 되며, 이는 양적 팽창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백화제방'과 '백가쟁명'을 꿈꿀 수 있는 배경이 된다. 다만 진리 여부를 그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술 권위의 하락은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권위를 여전히 당이 가지게 될까 우려될 뿐이다.

<참고문헌>

토마스 쿤, 1992, 『과학혁명의 구조』(서울: 동아출판사).

Alexander, Jeffrey C. 1995, 『Fin de Siecle Social Theory: Relativism, Reduction, and the Problem of Reason』(London, England and New York: Verso).

Bourdieu, Pierre. 1988, 『Homo Academicus』(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Collins, Randall. 1998,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A Global Theory of Intellectual Change』(Cambridge, MA: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DiMaggio, Paul J. 1997, 「Culture and Cogni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3』.

Frickel & Gross, 2005, 「A General Theory of Scientific/Intellectual Movem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

Greenhalgh, Susan, 2008, 『Just One Child』(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amont, Michele, 2001, 「Three Big Questions for a Big Book: Collins's The Sociology of Philosophies」, 『Sociological Theory 19』.

Messer-Davidow, Ellen, 2002, 『Disciplining Feminism: From Social Activism to Academic Discourse』(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Shapin, Steven, 1994, 『A Social History of Truth』(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mall, Mario L. 1999, 「Departmental conditions and the Emergence of New Disciplines」, 『Theory and Society 28』.

Turner, Stephen P. 2002, 『Brains/Practices/Relativism: Social Theory after

Cognitive Science』(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